

이동통신 기지국 공용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안병훈* · 박용삼** · 최병삼*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 전자통신연구소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우리 나라의 이동전화시장은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의 복점체제에서, 한국통신프리텔(이하 KT프리텔)(016), 한솔PCS(018), LG텔레콤(019) 등 개인휴대통신(PCS) 3사의 진입으로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갖추게 되어 가입자수, 가격, 품질,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무선통신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부구조인 무선기지국에 대한 치국경쟁이 가열되었고 그 결과 중복투자가 발생되고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이 훼손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유사한 상황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이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산업의 기지국 공용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고 기지국 공용화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제도 개선의 기본 관점은 과거와 같이 정부가 무조건 강제하는 제도(command-and-control 방식)에서 탈피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기꺼이 납득하고 준수할 수 있는 유인지향형 제도(incentive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지국 공용화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은 비단 현재 당면한 이동통신의 기지국 공용화뿐만 아니라 하부구조를 공유하는 기타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의 기본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내외 이동통신산업과 기지국 공용화 현황 (생략)

3. 현행 기지국 공용화 제도 평가

기지국 공용화가 미진했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간의 과도한 치국경쟁 - 독자적인 망설계(cell planning) 곤란, 사업추진 지연 - 공용화 제도 및 인센티브 미흡, 공용화사업의 추진주체인 공용화 대행사의 비효율성 - 공용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합의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기지국 경제성 확보 미흡 - 공용화의 자율 추진, 전담사 설립시기 지연 및 자본/인력 부족 - 산업 발전과정이나 사업자간 입장 차이를 고려한 제도설계 미흡

4. 기지국 공용화의 효익과 비용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익과 비용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익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투자의 방지 -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 - 공용화 추진상의 거래비용 - 공용화에 따른 불공정 경쟁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사업자의 진입/비효율적 사업자의 퇴출 - 신규서비스의 상용화 촉진 - 이동통신 산업내의 구조조정 촉진 - 공용화에 따른 자유로운 사업의지의 제한 - 공용화에 따른 사업자간 담합 가능성 확대

5.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p>기지국 공용화 제도가 비단 우리 나라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에서와 같이 상호로밍 등을 통해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p>
<p>이동통신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두 가지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업권을 갖는 복수의 사업자 허용 + 로밍 의무화 - 전국사업권을 갖는 복수 사업자 허용 + 기지국 공용화 <p>로밍과 기지국 공용화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임</p>

기지국 공용화 제도의 발전방향 : 유인지향형 기지국 공용화 제도	
공용화 유인의 확대조정	←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 설계
이해당사자들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 공용화 대행사의 역할 명확화
합리성/객관성/비차별성/객관성을 갖춘 상호정산규정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반경쟁적 행위 방지

6. 결 론